



宗 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助行
3. 國家 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 49 호

2006. 8. 15 (수)

順天金氏宗報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發行 / 發行人 : 김종식 / 편집인 : 김봉환 / http://www.schkim.co.kr /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전화 : (02)400-2501 ~ 2502/FAX : (02)400-2505

順天金門 大學生 夏季 教養講座

뿌리를 찾아 보학의 전당으로 운집한 대학생들



순천김문 중앙 종친회의 연례행사인 제21기 대학생 하계 교양강좌(6월28일~30일) 2박3일 동안 시조 묘역 동원재 가락당에서 종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고문, 지역 종친회 및 파종회 회장과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종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양강좌를 이수한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각자 문중에서 종주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내실을 기하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강사진으로는 김승연 교수(한밭대학)의 주관 아래 최인선 교수(순천대학 사학과)의 순천지역 역사와 배경, 김종웅 원장(여수문화원)이 김종의 성황신 추앙의 배경, 김영희 고문(중앙종친회)의 성철스님 주례사(유인물), 김동영 원장(석호서예원)의 예절과 현대인의 자세, 김인섭(부산 종친회) 관혼상례 음양의 적용, 김상운씨의 족보보기, 김동성씨의 팔천이군 김여률 장군, 김광연씨의 일상생활과 예절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서 전남 해남 소재 삼삼사 참배와 삼상사적비 제막식 참관 후 2박3일 일정을 모두 마쳤다.



우리 방춘서원은 이조 숙종 24년 1698년 장능전례의 부설로 가묘설치 월담 양경공 승주 조 절제 종서 조배향

방춘서원 주변 정리 사업

서기 1771년 이조시대 영조 47년(1746 영조 22년) 절제 종서 조의복관으로 본군 유립들로부터 세웠으며 이조 22대 정조 8년 서기 1784년 북저 유조를 주배하면서 사우명을 삼상사로 이름지어 매년 음 3월 7일 제향을 모시었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회철되었으나 기호의 사립 167인이 조정에 호소하여 단으로 향배하다가 1919년에 단소의 위치에 사우를 중건 방춘서원으로 개칭하였다.

방춘서원 경내에 소재한 방춘정은 이조 22대 정조 8년 1784년 건립하여 순천김씨 후손들의 강학소로 사용하다가 종국에는 이곳 향토의 교육 수도장으로 발전하여 오던 중 모든 학술적인 여건이 문화재 가치로 인정받아 전라남도 문화재 209호로 지정되어 2006년도에 일차로 도비 7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등 총 1억 5백만원으로 문화재 삼진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 설계도 완성 문화재 건설

회사인 우보건설 회사와 계약 2006년 4월 6일 착공 약 3개월에 걸쳐 완공함에 있어 김종식 순천김씨 중앙종친회장님께서 순천김씨 삼상사적비 수립하셨고 우보건설의 많은 협조하에 삼상사적비 제막식과 방춘서원 주변정리사업을 완공 한결 정결한 모습으로 정비하여 2006년 6월 30일 중앙종친회장을 비롯 임원진과 하계강좌에 참여한 대학생 및 향리 종친들의 많은 참여 속에 준공식을 가졌으며 향우 방춘서원 의심문 7간을 이설 개축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 8월 일

방춘서원 별유사
김정태

中央宗親會 第17期 定期總會 開催公告

會則 第12條 1項에 依據 2006年度 定期總會를 下記와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

- 下 記 -

1. 日 時 : 2006年 11月 20日 15時
2. 場 所 : 全南 順天市 주암면 창촌리(同原齋 嘉樂堂)
3. 參席範圍 : 中央宗親會 任職員 및 代議員
4. 案 件
 - 1) 業務報告
 - 2) 第16期 歲入 歲出 決算(案)

- 3) 第17期 歲入 歲出 決算(案)
- 4) 기타 事項

* 地域 宗親會 會長과 派宗會 會長은 任員들에게 連絡하여
全員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달 21일은 始祖 秋享祭입니다.

2006年 8月 21日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公 告

同源齋 外三門 上樑式 舉行

2006年丙戌年8月3日 15時(陰7月10日甲子日申時)에 相容 常任副會長 主管 아래 宗親들과 來賓들이 參席한 가운데 敬虔하고 嚴肅하게 上梁式을 舉行하였다.

이날 相容 常任副會長은 都편수를 비롯한 人夫들에게 金一封을 傳達하고 激勵하였다.



上樑文

그윽히 생각하온대 우리 金門의 貢鄉은 順天이요 始祖이신 平陽君 謂 捷께서는 그 옛날 順天(昇平)으로 나가시어 그 고장에 侵入하여 掠奪과 行悖를 態行하는 外寇를 捕獲하시고, 德으로 政事를 평시어 民生을 便케 하셨지요. 公께서 作故하시자 그곳百姓들은 公의 影徳을 進禮山에 모시고 그곳의 守護神인 城隍神으로 받들었고 高麗와 朝鮮朝에서도, 春秋로 祭享을 올렸었지요.

근 千年이 지난 18世紀 末葉 그 곳 鄉儒 趙顯範은 進禮山을 바라보고 “公의 蔭德은 后世에까지 傳해지고 있다”고 하고 “많은 文武賢臣들은 저 進禮山을 아니보았는가”라고 舊發을 促求하는 글을 그의 文集 江南樂府에 싣고 있다.

倭政 初에 祠堂이 毁撤된지 근百年이 지난 오늘날 그 곳 住民들은 公을 欽慕하여十余年前부터 靈鷲山(당시 進禮山)에 墓所를 造成하고 每年 寒食節이면 公을 靈鷲山神으로 받들고 舉市의으로 祭享을 지내며 고장 安寧과 繁榮을 기원하고 있으니 感慨無量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后孫들 어찌 公을 崇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自古로 公卿碩儒가 끝이지 않고 輩出되어 우리 金門이 名門 華闕로 세상에 우뚝서게된것 또한 公의 蔭德이 아니겠는가.

오랜 歲月이 흘러 公의 墓所 外三門이 頽落하여 遺憾之事로 지내오다 그동안 39世孫 鍾植(中央會長)의 刻苦의 努力과 40世孫 升淵의 精誠이란 巨金의 獻誠으로 本 三門의 重建과 影堂 및 同源齋의 丹青 그리고 담장의 改修등 大工事を 施行하게 되어 42世孫 相容을 工事都監으로 委嘱하고 丙戌(2006年) 6月 12日 着工하여 오늘 本 三門 上樑을 보게 되었으니 稱으로 廣事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 일을 도울 겸 俗되지만 敢司 上樑詞를 적어 본다.

어영차! 東쪽으로 주척이니

右白虎의 푸른 竹林 바람결에 살랑이고
햇빛 받은 蓮塘물은 아름답게 반짝이네

어영차! 南쪽으로 주척이니

시냇물은 흘러 흘러 굽이굽이 끌이 없고
高速道의 車輛行列 豐饒신고 疾走하네

어영차! 西쪽으로 주척이니

左青龍의 힘찬 모습 줄기차게 뻗어있고
하늘높이 솟아있는 푸른 松林 일렁이네

어영차! 北쪽으로 주척이니

始祖府君 잠든 幽宅依然하게 자리하고
그 모습이 莊重하여 肅然하게 머리숙네

어영차! 위쪽으로 주척이니

흰 구름이 뭉개뭉개 여기저기 등실대고
밝은 햇님 벙글벙글 웃음 짓고 祝福하네

어영차! 아래쪽에 주척이니

세멘돌의 바닥基礎 翩固하게 다져졌고
重建되는 外三門은 그 榮光이 無窮하리

天地神明이시여 삼가 願하옵건데 古建築의 規例에 따라 築造하고 있는 본 三門이 上樑后 竣工이 되면 永久히 빛나는 建造物로 남게 하시고 萬百姓이 이 門을 자연스레出入하여 始祖府君 欽慕하고 宗族和睦 더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고을의 民生은 福을 받고 風俗은 아름답게 되도록 瑞氣 내려주소서.

丙戌(2006年) 月 日

38世孫 明在 삼가 씀.



제민정형외과·내과

JAEMIN Orthopedic & Internal Medicine



정형외과 원장 / 김 진 호

정형외과 전문의, 인제대학교 백병원 외래교수

▶ 학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인제대학교 부속 명동 백병원 정형외과 수료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의사협회 증식치료 교육 이수

대한HMS학회 IMS 교육 이수

메조세라피(Mesotherapy) 교육이수

대한정형외과학회 TPI 교육 이수

대한정형외과학회 관절염 흥보 위원

메조세라피(Mesotherapy) 교육이수

대한정형외과학회 TPI 교육 이수

대한정형외과학회 관절염 흥보 위원

도봉구 정병원 정형외과과장 역임

제민정형외과내과의원 개원, 정형외과원장

현 - 인제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 외래강사, 노원구 의사회 재무이사, 노원구 청년이사회 봉사이사

내과 원장 / 조 문 숙

(전)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교수, 내분비분과전문의

▶ 학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사)

인제대학교 대학원(의학석사)

인제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졸업

▶ 면허 및 자격

의사면허(제47750호), 내과전문의자격(제3641호)

당뇨병교육자 자격인정증(제 1-238호)

내분비분과 전문의(제4-02-239호)

▶ 경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전공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 임상강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 전임강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 조교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퇴직

조문숙 내과 개원

제민정형외과내과의원 개원, 내과원장

현 - 대한내분비학회 평생회원, 당뇨병학회평생회원, 대한내

과학회평생회원, 백병원 외래교수, 당뇨병교육자인정의

※ 宗親來院 特別禮遇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1305번지 동양아파트 단지상가 3층

301호 302호 TEL : 936-6390, 9390 / FAX : 937-8390

贈 通政大夫 潤자業公의 碑 改修후 感謝牌 전달

지난 2006년 7월 21일 (6월 6일) 순천 김씨35세손 즉 양경공 13대손 潤자業公의 碑石을 改修하였다. 潤자業公은 해남 落鄉祖 남은공 孝子友의 9대손으로 현제

祖父 時자敬 父 美자直 3대가 連葬되어 山下 隱德齊에 配享하고 있으며 1744년
英廟 갑자 10월 22일에 壽卒하시여 通政大夫 寺僕寺
正을 증자 받았으나 그간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풍우에 훼손되고 上系代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
門任 相允 이하 門中一同이 항상 이를 안타까워
하던 중 중앙종친회 상임 부회장이신 相容 族弟
가 私財를 투척하여 웅장한 새로운 비석으로 개
수 挺立하였기에 黃山派 문중 남여 30여명이 모
여 이를 축하는 성대한 행사를 갖고 門中 일동명의
로 相容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2006. 7. .

양경공20대손 黃山派 門中

金相默 詔



아름다운 獻誠

지난 8월 11일 尚衣院正公派宗會의 金東學會長님께서
동회 총무 商琨 종친을 대동하고 본회에 내방하여 본회
회장님과 담소한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東學會長님 말씀이 “도문화재인 始祖府君
의 오손된 영정(影幀)을 복원하여 새로이 봉안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아 中央宗親會에서 걱정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어 지난 8월 5일 성남시 여수동에서 개
최한 저의 임시 총회에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尚衣院正
公 유재(?)중에서 찬조해 줌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하였
던바 참석한 전회원이 뜻 깊은 일이라며 흔쾌히 찬동하여
의결한 바 있어 그 현성금을 가지고 왔노라”며 금일봉(일
천만원)을 내놓으셨습니다.

돌이가신 조상님께서 始祖府君께 효도하시는 일 같아
나도 모르게 숙연해 졌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
이겠습니까.

< 편집자 >

孔子任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重要的 것은 어진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孔子任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즉, 남의 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自身이 모시는 어른을 흉보는 사람, 勇氣는 있지만 禮儀가 바르지 못한 사람, 果敢하기는 하지만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고傳해진다. 當然한 말씀이다. 相對方의 허물을 따져서 무얼 하겠는가. 좋은點을 찾아서 키워주기도 바쁜 세상인데 굳이 허물을 들판에 말해 준다고 고마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 거린다고 흥본다는 俗談도 있지 않는가. 自己의 허물을 生覺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란다는 뜻이리라. 너와 내가 같을 수도 있는데 내 눈에 다르게 비친다고 해서 이런저런 일을 허물로 生覺하지는 말자. 서로의 價值觀이 다르다고趣向이 다른데 어찌 내 맘과 같기를 바라겠는가.

그리고 가까이 모시는 어른에 대해서는 自身이 第一 잘 있다고 生覺할 수 있겠으나 사람의 깊은 속을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모시는 어른을 흉보는 일은 絶對로 옳은 일이 아니다.

언젠가 自身이 모시는 사람을 為해 每日 아침 祈禱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인 즉 不足한 나를 認定해 주고 키워 주었으니 바로 恩人이 아니겠는가 것이다. 이는 因果應報의 哲學을 터득한 結果임에 믿음으로 윗사람을 대하는 그를 보고 있으며 마음

이 따뜻해지곤 하였다. 勇氣 있는 사람은 敵이라 할지라도 나는 尊敬 한다는 나폴레옹 1세의 말이 있다. 勇氣 하나로 하루아침에 急成長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感歎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하는 높은 줄 모르고 으스대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왜 그리 危殆로운지 驕慢에 가까운 行動 때문에 그들의 勇氣가 빛을 잃어버릴까봐 안절부절 못할 때도 間或 있다. 自己의 잘못을 감추어가며 남의 功績을 마치 自己 끝으로 둘리려는 奸惡한 手法역시 그릇된 勇氣와 無知의 驕慢에 偶를 犯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일 이란 勇氣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知慧로 터득했으면 좋으련만.....

마음은 팔고 사지는 못 하지만 누구에게라도 限 없이 줄 수 있는 財產이다. 아무리 퍼내고 줄지 않는 샘물 같은 것 이어서 줄어들 念慮도 없어서 좋다. 지난 월드컵 때는 넓은 運動場에 둑근 蹴球공과 太極戰士들을 바라보며 수 많은 사람들이 목청껏 大韓民國!!!! 을 외쳐 대며 應援을 했다. 그러나 정작 自身의 마음속을 공처럼 둉그렇게 運動場처럼 넓게 갖겠다는 사람은 過然 얼마나 됐을까?

지난날을 보내며 孔子任이 싫어하는 사람 중 나는 어디에 該當하는 사람일까 或은 各宗門에 宗事로 사소한 利益에 急急하여 相互間에 無謀한 媳動으로 不信, 不睦, 不和를 造成하여 祖上에 부끄럼이 없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反省해 볼 일이다.

중앙종친회 수석 부회장 김상용

順天金氏 寶典 世蹟總覽

世蹟總覽 編纂委員들의 1년 동안 刻苦끝에
苦待하던 世蹟總覽을 完刊하여 8월 25일
부터 頒帙할 예정입니다.

2006년 8월 10일

世蹟總覽編纂委員會
委員長 金昌淵

順天金氏 大邱, 慶北 明親會 (會長 金榮熙) 創刊號 發行 발간사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명친회가 발족된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서야 회보(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회원 여러분과 함께 흐뭇한 마음으로 자축하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회원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여 드림으로써 우리 명친회를 비롯, 순천김씨 종친간에 소속감과 일체감을 고취시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명친회 회원 여러분!

이번 발간하는 회보를 계기로 하여 우리 명친회원간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점이 넘치는 상부상조의 기풍이 더욱 굳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발행하는 관계로 내용이 부족하고 빈약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명친회 소식지가 일취월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명친회 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회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가내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6. 7.

명친회장 김 영 희 드림



宗親會活性化方案의摸索

어떤 團體의 모임이던지 재미가 있으면 많은 人員이 모이게 되고 재미가 없으면 수가 줄고 빈약한 團體가 되게 마련이다.

宗親會란 같은 氏族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1개월 혹은 2개월 만에 한차례 모이는 특수한 團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團體와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地域支會의 구성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現代化된 社會에서는 젊은 世代들이 氏族觀念이 희박(稀薄) 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民主主義란 代議政治가 지방에까지 파급(波及)되면서 各級議會議員 및 團體長選出를 기원하면 宗親 中에서 뽑고자 하는데서 多少 宗親會가 결속력(結束)을 얻게 되는 듯하다. 이런 예는 일시적 현상(現象)이라 하겠다.

根本적으로는 같은 祖上을 가진 血族으로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돋고 갈이 슬퍼하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雰圍氣)로 가득 찬 宗親會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宗親會가 유지 되어오고 산재한 宗親들이 多少 生活이 安定되고 時間의 여유(余裕)도 생기면 宗親會의 소재(所在)를 찾게 된다.

본인도 오랜 公職生活을 통해 興起한

시절에는 宗親會에 關心이 없었으나 연만(連晚)해지면서 내 故鄉처럼 여겨지는 宗親會를 수소문해서 찾게 됐다.

釜山 宗親會의 경우 어떤 宗親께서는 數個月間 여러 곳을 찾아 헤매다 겨우 찾아 왔다고 고 월례회에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경남 밀양에 산, 골짜기에서 축산(畜產)을 하는 한 宗親도 수소문 끝에 겨우 釜山 宗親會를 찾았다고 故鄉에 온 것 만약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가서는 월례회 때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는 비단 釜山 宗親會 뿐만은 아닐 것으로 짐작한다.

그 까닭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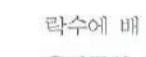
첫째는 처음만난 宗親끼리 族譜상의 行列(行列)을 따지게 되는데 손자뿐이라던지 할아버지 뿐이라던지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대화중에 금시 하시(下視)하고 반말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상대에게 유쾌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둘째로 연회석상(宴會席上)에서 반주(餞酒)가 한두 잔 오고가면 대화가 거칠고 시끄러워진다. 성장 과정과 연령(年令)의 차이, 학식과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락수에 배 띄워두니 가을같이 시원하네
우리들의 고상한 놀이 제일류로다
뜻을 얻은 어옹은 시골 나루로 돌아가고
근심 잊은 백로는 모래풀에 내려오네
화왕상의 나무 그늘은 과도속에 기우려졌고
우포의 풍광은 그림위에 펼쳐졌네
흘빠져내 달은밝고 노를 돌려 돌아오니
석양 편조하여 고금의 근심이로다



全國漢詩白日場大會入選 橫城公派巴山門中在文宗親



오는 용어사용(用語使用)과 예의(禮儀)를 갖추지 못하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해서 특별한 관계나 정이 얼水泥는 회원 의에는 권태(倦怠)를 느끼게 마련이다. 그래서 宗親會가 要緊하면서도 장, 노년층 소수가 지탱하는 團體로 화하지 않는지 분석(分析)해 본다.

그렇다면 宗親會의 活性化 方案은 무엇일까?에 대해 摸索해 보기로 한다.

첫째, 宗親일찌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集會 때마다 會員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도록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가 人格的으로 친근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둘째, 회의 진행 때는 반드시 회의 법에 준한 회의 진행으로 질서가 있게 해야 한다.

셋째, 회무가 끝나면 가정 통신 순서를 마련해서 각 회원의 가정 소식을 듣는 것도 친근해지는 방법이다.

넷째, 전국 각지의 宗親會의 特異한 소식이 宗報를 통해 알려진 것이 있으면 소개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특히 族譜研究, 宗親의 人物史 등 宗報를 통해 소개되면 그 내용을 회의시 소개하는 것은 흥미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宗親 會員中에 專門職에 종사

* 성현의 말씀

오늘 두 분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데, 이 마음이 실던, 이십년, 삼십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결혼식장에서 약속한 것 다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겁은 머리가 하얀 과뿌리가 될 때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돋고 살겠는가 둘으면,

"예"하며 약속을 해 놓고는 8일을 못 넘기고 3개월, 3년을 못 넘기고 남편 때문에 못살겠다. 아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해 놓고는 살면서는 "아이고 괜히 결혼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안하는게 나았을걸". 후회하는 마음을 납니다. 그럼 안 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안 살수도 없고 이래 어영부영 하다가 얘기가 생기니까 또 얘기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 가지고, 아니 남편을 "아이고 원수야"합니다.

이렇게 남편 때문에, 아니 때문에 고생 고생하다가 나이 들면서 겨우 포기하고 살만하다 싶은데, 이제 또 자식이 애를 먹입니다.

자식이 사춘기 지나면서 어긋나고 온갖 애를 먹여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고생하며 삽니다.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때는 다 부러운데, 한참 인생을 살다보면 여기 이 스님이 부러워 "아이고 저 스님 팔자도 좋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스님이 되는 것이 좋으면 처음부터 되지, 왜 결혼해 살면서 스님을 부러워합니까? 이렇게 인생이 괴로움 속에서 돌고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말 할 테니, 두 분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하객)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좋아서 결혼하는데 이 결혼할 때 마음이 어찌나?

선도 많이 보고 사귀기도 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것저것 따져 보는데, 그 따져보는 그 근본 심보는 덕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을 미리 지명해서 회의 때 10여분간 專門職 분야를 소개 받는 것도 유익한 것으로 본다.

여섯째, 전국 宗親會 서로 친선 교류에 적합한 상대를 골라서 1년 중 한번 씩 방문 교류하는 것도 프로그램여하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곱째, 1년간 한 두 차례 사회참여가 되는 봉사 활동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으로 여긴다.

이상의 방안을 실현하는데는 宗親會 中央會에 地方 宗親會 擔當幹事(職員)이 한분 있어서 地方 宗親會 간에 서로 연결 지어주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도록 이끌어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宗報도 책임자가 수고스럽지만 각 地方 宗親會의 소식 취급보도와 프로그램이 될 자료를 수시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맡아 준다면 宗親會 活性화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釜山宗親會

金鳳奐

(前 CBS 放送局 光州 大邱 局長)

저 사람 돈이 얼마나 있나, 학벌은 어떻나, 지위는 어떻나, 성질은 어떻나, 건강은 어떻나, 이렇게 다 따져 가지고 이리저리 고르는 이유는 며 좀 불까 하는 마음입니다.

손해 볼 마음이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 볼 수 있는 것을 고르고 고릅니다. 이렇게 끌렸다는 것은 덕 보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덕 보자고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덕 보겠다는 이 마음이 살다가 보면 디딤의 원인이 됩니다.

아내는 30%주고 70% 덕 보자고 하고, 남편도 자기가 한 30%주고 70%덕 보자고 하니, 둘이 같이 살면서 70%를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30%밖에 못 받으니까 살다보면 "결혼을 괜히 했나? 속았나? 하는 생각을 심증증구하게 됩니다. '속은 것은 아닌가?'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덕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 좀 적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내가 자분을 좀 도와 줘야지!'

자분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평생 보살펴 줘야겠다!

자분 경제가 어려우니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겠다!

'아이고 저분 성격이 저렇게 팔팔하니까 내가 꺼이어서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베풀어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길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덕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백명 중에 고르고고르고 해도, 막상 고르고 보면 제일 영동한걸 고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덕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백명 중에 고르고고르고 해도, 막상 고르고 보면 제일 영동한걸 고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해도 잘 살았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시집을 가보니 그런대로 살만하니까 웃고 사는데, 요새는 시집가고 잠가가면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하고 가보지만가 봐도 별 볼일이 없으니까, '괜히 결혼했나?' 후회가 됩니다. 결혼식하고 며칠 안돼서부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신랑 신부 혼수 구하려 다니다가 의견 치이나 생겨서 벌써 다투게 됩니다.

안했으면 하지만 날짜 잡아놔서 그냥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두 사람이 여기 청년 정토회에서 만나서 부처님 법문 듣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덕 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무얼 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대로 자분하고 살면서 자분이 나하고 살면서 그래도 좀 덕 봤다는 생각이 틀도록 해줘야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보를 잘 못 가져놓고 자꾸 자주 팔자를 보려고 합니다.

궁합본다고 비꾸는게 아닙니다. 바깥궁합, 속궁합 다보고 살면을 동거하고 살아봐도, 이 심보가 안 바뀌면 사흘 살고 뜻입니다.

그러니 이 하객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니까, 괜히 둘이 잘 살면 심보를 부립니다.

남편에게 "왜 괜히 바보같이 미누리에게 쥐여사나, 이렇게 할 것 뭐 있나."하고, 아내에게는 "내가 왜 이렇게 남편에게 죽여 사나, 내가 얼굴이 뜯었나. 왜 그렇게 죽여 사노." 이렇게 옆에서 살살 부추기며, 결혼할 때 박수치지만 내입부터는 싸움을 불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패한 사람들이 괜히 심술을 놓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남편에게 덕 되는 일 좀 해야 되겠다. 남이 뭐라 그러든,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남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딱 굳혀야 합니다.

괜히 애까지 낳아 놓고 나중에 이혼을 한다고 소란 피우지 말고 지금 생각을 딱 굳혀야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덕 봐야 돼요? 손해 봐야 돼요? 손해 보는 것이 이익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두 분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성 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마음이 딱 합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의 오장육보가 편안해 집니다.

이 오장육보가 편안해 지면 어떻게 되느냐, 입신해서 얘기를 갖게 될 때, 엉가들도 죽을 때, 초조 불안해 죽은 귀신도 있고, 편안하게도 뒤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편안한 데는 편안하게 인연을 맺어오고, 초

조 불안하면 초조 불안하게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태라 합니다.

태교가 아니라, 임태할 때 여자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임태를 하면 선신을 임태를 하고, 심보가 안 좋을 때 임태를 하면 악신을 임태합니다. 저글에 씨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혼해 가지고 덕 보려고 했는데 손해를 보니까, 심사가 뒤를려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자다보니 애가 생깁니다.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둘이 좋아 가지고 더부족 덥덥 하다 보니까 애기 생깁니다.

그러니 이게 처음부터 태교가 잘못 됩니다. 이렇게 임태해 가지고는 성인 낳기는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 먹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 나중에 위를 해부해 보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있습니다.

이 자궁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오장육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짜증을 내면 나중에 위를 해부해 보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됩니다.

안에 있는 얘기가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천적으로 신경질환이나 생기든지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엄마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원기가 늘 따뜻하게 들고, 얘기가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편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태어나도 신천적으로 도인처럼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세상이 어떻든 애들 가진 이는 편안해야 합니다.

편안하려면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편안한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바로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이 애는 좋은 애를 낳고 싶으면서 아내를 걱정시키면 좋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애를 낳았다고 하면 집에 일찍 들어오고, 나쁜 것은 안 보여주고, 늘 아끼주고 사랑해 줘서 거들어 줘야 합니다. 시어머니들도 손자는 좋은 것은 보고 싶은데, 며느리를 볶으면 손자는 나쁜 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편안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편안한 것이 제일 좋고, 주위에서도 이렇게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물식을 먹여먹어야 합니다.

육식을 조금하고 채식을 많이 하고, 술 배를 멀리하고 이렇게 해야 애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낳은 후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들어서 서로 싸운다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말을 배우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말 배우고, 일본에서는 일본말 배우고, 원숭이 무리에서 자라면 원숭이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이의 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조그만 한다고 얘기를 옆에 두고 들어서 짜증내고 다투면, 사진 찍듯이 그대로 아이 심성이 결정이 남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 수정하고 그러면 아이가 '나는 크며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하지만 크면 순주정 합니다. 대부분는 집에서 태어나면 자기는 크면 절대로 다투지 않겠다고 하지만 크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모방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얘기를 넣으면 직장을 다니지 말아요. 아니면 3년은 직장을 그만 두어요. 아니면 얘기를 앓고 직장을 나가든지. 이렇게 해서 애를 무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를 무선적으로 하려면 아이를 낳고, 안 그러면 안 날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인생을 망치는 고생 당어리가 됩니다. 애,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살게 됩니다.

3년까지만 하면 과외 안 시켜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려면 날지를 막고 날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좋고 자식도 좋고 세상도 좋습니다. 잘못 앓아 키워 놓으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첫째 명심하십시오. 가정에서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신도 분들 많이 만나보면, 예 때문에 시골 살면서 남편 떼어놓고 애 데리고 서울로 이사 가는 사람, 애 데리고 미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부부는 애를 우선적으

로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얘기는 늘 이차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대학에 떨어지면 꿀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누가 제일 중요하나, 아내요 남편이 첫째입니다. 남편이 다른 곳으로 전근가면 무조건 따라 가십시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학교 몇 번 옮겨도 됩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중심으로 놓고 세상을 살면 아이들은 전학을 열 번 가도 아무 문제없이 잘 살입니다.

그런데 애를 중심으로 놓고 오냐오나하면서 자꾸 부부가 혼자 살면, 애는 아무리 잘해줘도 망칩니다. 여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신 차리십시오.

제 얘기를 선물로 받아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가정이 중심이 서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이렇게 먼저 내가 좋고 가정이 화목한 것을 하면서 내가 사는 세상에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 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내 자식만 귀엽게 생각 많고, 이웃집 아이도 귀엽게 생각하고, 내 부모만 출 게 생각하지 말고 이웃집 노인도 좋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내면 어머니, 내가 성인이 되고 자식이 좋은 것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식에게 정성을 쓸으면 반드시 자식이 어긋나고 불효합니다. 그런데 늘 자식보다는 부모를, 첫째가 남편이고 아내고, 두 번째는 부모가 돼야 자식이 교육이 똑바로 됩니다. 애를 매들고 가르친 필요 없이, 내가 늘 부모를 먼저 생각하면 자식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우다 나중에 저게 누굴 닦아 그러나 하면 안 됩니다. 누굴 닦겠습니까?

둘을 닦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쁜 인연을 지어서 나쁜 과보를 받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인연을 잘 지어서 처음에 조금만 노력하면 나중에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자식을 낳으려면 임태할 때와 뱃속에 있을 때, 세 살 때까지가 중요하나 마음이 편안해야 하고 부부가 화합해야 합니다. 주로 결혼해서 틈이 생길 때 애가 생기고, 저 남자와 못살겠다. 할 때, 얘기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을, 아내를 서로 우선시 하고 자식을 우선시 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남편이나 아내를 우선시 하지 않아도 부모를 우선시 하지, 남편이나 아내보다는 부모를 우선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옛날이 아닙니다.

일단, 아내와 남편을 우선시 할 것.

두 번째는 부모를 우선시 할 것.

세 번째는 자식을 우선시 할 것.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의 여러 가지도 함께 기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재미가 있고, 비가 세는 집에 살이어도 재미가 있고, 나를 먹고 물 마셔도 인생일 즐거워집니다.

즐겁자고 사는 거지 괴롭자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두 부부는 이것을 중심에 놓고 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에 가서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되고, 뛰든지 잘됩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자기 생각 고집해서 살면 결혼 안 하느니 보다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좋은 이 마음 죽을 때까지 내생애까지 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따로 머리깍고 스님이 되어 살지 않아도, 혼란하고 혼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승보살의 길입니다.

제가 부주 대신 이렇게 맡고 부주를 하니까 두 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성철스님 주례사 중에서 -

종양종친회 상임고문 김영희

제21기 대학생 하계교양강좌

- 석호 김동영 원장의 행위예술(TERFORMANCE) 선보이다 -

김종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특히 금년에는 식전 이벤트행사로서 대구 석호서예원 종친 김동영 원장께서 행위예술(TERFORMANCE)을 선보였다.

가로 5m 세로 30m의 대형지면(천)에 왕대필(1m50cm)을 사용하여 “崇祖精神”이라는 내용으로 온몸을 움직이면서 휘호를 하는 모습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동작을 연상케 하여 참관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마지막 “神”的 1획은 김종식 회장과 함께 힘차게 내려 꽂아 모든 순천김씨 종친의 단합과 화합을 상징하여 이를 지켜본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행위예술(TERFORMANCE)은 일상에 몇번 행하지 않은 진귀한 예술의 극치이다.

嶺南 書畫界 元老 石湖 金東泳 先生
大學生 夏季 教養講座 特講



감상문

● 김정훈 경북 문경시 모전동 (광운대학교 2학년 - 소프트웨어과)

일단 처음에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 뿌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굳이 순천까지 가야 만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하고 갈려고 했는데 같은 순천김가 어르신 분들, 대학 교수님, 또 석호 선생님들의 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나 순천의 지명의 변천과정과 三山二水나 八馬에 대한 설명, 우리 시조 김총 할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들, 음양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혼례 절차나 상례, 재례 같은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서 처음의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하게 됐다. 특히 첫날 석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대붓으로 하는 행위 예술이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했던 족보 보는 법, 또 그것을 배워서 스스로 족보를 찾아서 비록 내 이름까지는 없었지만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분들의 이름을 찾아 보았던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제 교양강좌도 거의 끝나가지만 정말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것 같다. 곧 대학생이 되는 친척들이나 이번에 못온 친척들한테도 꼭 다음에 가라고 추천하고 싶다. 끝으로 이런 강의를 마련해 주신 어르신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김진희 경북 안동시 태화동 (안동과학대 - 실내공간인테리어과)

순천김씨 대학생 하계 교양강좌를 배우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사실과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양강좌를 듣게 되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양강좌를 처음 듣고 저의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 순천김씨에서 조상을 찾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그 동안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게 되었는지 알았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김종장군님께서 여기 성황신으로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순천김씨하면 김종서 장군님 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우리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고 훌륭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 왔는지 새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순천김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이런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꼭 다시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 김현태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구보건대 - 안경과 졸업)

얼마 전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준비를 하면서 항상 마음한 구석이 허전한 찰나에 부친의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이번 하계 대학생 교양강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도와주시는 어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전에 이 교육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번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순천김씨 일가 중 이 교육

을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서슴치 마시고 종친회를 통해 신청하고 교육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첫 번째의 방법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의 행함이 자신의 조상이 누군 줄 알고 조상이 어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순천김씨 최초의 조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활자를 쓰시는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첫 공부의 자리가 순천김씨 대학생 교양강좌라는 것을 저는 이번 교육에 임하므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는 교육이 딱딱하고 알 아듣지 못하는 교육이 아닐까? 오는 친구들과 서먹서먹하지는 않을까? 갖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첫날 교육을 받으며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교육 후 여기온 친구들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보니 재미있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오고 싶은 곳인 것을 알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내가 느낀 점을 적고 제출하라고 하시는 간사님 말씀에 부끄럽지만 이 글을 마칩니다.

● 김수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1동 (조선대 - 기계설계공학과 2학년)

한참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때 집안 어른들께서 족보를 다시 쓰신다면 바쁘게 움직이시던 때가 생각난다. 족보가 새로 나오자 할아버지는 우리를 불러 앉아 족보를 설명해주셨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만 신기했을 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할아버지가 종친회 일을 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생을 위한 대학강좌가 1년에 한번씩 열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촌동생 경모와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게 낯설고 언제 2박3일이 지나갈까 막막하기만 했다.

첫날밤부터 할아버지들께서 풍수지리, 제사 지내는 법, 절 하는 법 등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하고도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다. 우리를 위해 이벤트를 열어주신 석호 할아버지의 퍼포먼스.. 태어나서 처음 봤다. 퍼포먼스를 본 후 산에 올라가 묘역에 인사를 드렸다. 생긴지가 좀 되었지만 처음으로 온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자 서먹서먹했던 21기들과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파를 물으며 첫날의 밤을 보냈다. 둘째날 아침은 묘역에 인사를 가는 것을 시작했다. 아침식사 후 할아버지님들과 초청강연을 들었다. 모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였지만 온통 새로운 내용들이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뽑혀 이런 귀중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걸 행운이라고..

우리 조상들에 대해 이제는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의 마지막에 배운 족보보는 방법. 어렵게만 생각했던 족보 보는 방법이 이렇게 쉬울지 몰랐다. 여기에 있던 2박3일동안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을 배워간다. 3년후에 대학생이 될 동생도 꼭 보내고 싶다. 할아버지님들 귀중한 내용들 감사합니다.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6년 5월 ~ 2006년 8월 14일

고 문

- 1. 김명규 2006. 6. 26 울산광역시 신정동

이 사

- 1. 김상우 2006. 5. 26 서울특별시 면목동
- 2. 김인선 2006. 6. 1 경기도 고양시
- 3. 김동준 2006. 6. 8 충청남도 천안시
- 4. 김서연 2006. 6. 22 경기도 고양시
- 5. 김어연 2006. 6. 22 경기도 고양시
- 6. 김동학 2006. 6. 22 경기도 고양시
- 7. 김동옥 2006. 6. 22 경기도 고양시
- 8. 김상웅 2006. 6. 22 경기도 고양시

대의원

- 1. 김현희 2006. 5. 30 전라남도 해남
- 2. 김해수 2006. 6. 2 부산광역시 남구
- 3. 김유환 2006. 6. 1 충청남도 부여군
- 4. 김승부 2006. 6. 1 전라남도 해남군
- 5. 김상을 2006. 6.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 6. 김세연 2006. 6. 22 경기도 파주시
- 7. 김동원 2006. 6. 22 경기도 파주시
- 8. 김상의 2006. 6. 28 경기도 고양시
- 9. 김동원 2006. 7. 31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원

- 1. 김공원 2006. 4. 26 광주광역시 서구
- 2. 김유동 2006. 4. 26 부산광역시 남구
- 3. 김장덕 2006. 4. 25 전라남도 해남군
- 4. 김동호 2006. 4. 28 서울시 송파구
- 5. 김한연 2006. 5. 2 서울시 동대문구
- 6. 김홍배 2006. 5. 10 인천광역시 남구
- 7. 김귀원 2006. 5. 9 전라남도 담양
- 8. 김수진 2006. 5.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 9. 김용훈 2006. 5.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 10. 김경원 2006. 5. 30 서울특별시 도봉구
- 11. 김동현 2006. 5. 30 경기도 시흥시
- 12. 김영열 2006. 6. 1 강원도 횡성
- 13. 김동주 2006. 6. 1 서울특별시 동작구
- 14. 김광도 2006. 5. 29 강원도 양구군
- 15. 김동이 2006. 6. 1 울산광역시 북구
- 16. 김철희 2006. 6. 2 서울특별시 용산구
- 17. 김동철 2006. 6. 2 서울특별시 강서구
- 18. 김홍연 2006. 6. 2 경기도 성남시
- 19. 김도균 2006. 6. 2 강원도 원주시
- 20. 김태현 2006. 5. 30 전라남도 해남군
- 21. 김봉래 2006. 5. 30 강원도 정선군
- 22. 김학수 2006. 5. 30 경상북도 문경
- 23. 김동철 2006. 6. 2 대구광역시 북구
- 24. 김인상 2006. 6. 2 충청남도 보령
- 25. 김정수 2006. 6. 2 경상북도 경주
- 26. 김승걸 2006. 6. 2 경상북도 안동
- 27. 김명 2006. 6. 5 경기도 양주
- 28. 김동한 2006. 6. 5 경기도 안산시
- 29. 김계연 2006. 6. 5 경상북도 영주시
- 30. 김병달 2006. 6. 7 서울특별시 송파구
- 31. 김중권 2006. 6. 7 경기도 김포시
- 32. 김동석 2006. 6. 5 경기도 김포시
- 33. 김동국 2006. 6. 7 경기도 고양시
- 34. 김상휴 2006. 6. 7 경기도 안양시

무명인

- 1. 2006년 5월 30일 서수원 새마을금고
- 2. 2006년 6월 1일 외환은행/연희동 지점
- 3. 2006년 6월 7일 우리은행/대치역
- 4. 2006년 6월 7일 새마을금고/의왕
- 5. 2006년 6월 12일 농협/고양저동지점
- 6. 2006년 6월 12일 서울죽산농협/돈암동지점
- 7. 2006년 6월 29일 외환은행/연희동지점
- 8. 2006년 6월 29일 농협/풍향동지점
- 9. 2006년 6월 30일 구성농협/연원지점
- 10. 2006년 7월 31일 국민은행/금촌중앙지점
- 11. 2006년 7월 27일 농협/웅천지점

動 靜



當選

**京畿道 道議員
金輔淵
(경기 고양시)**

**慶北聞慶市 市議員
김지현
(경북 문경시)**



꿈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 꿈은 얼마나 큰 행복으로 자랄까요?

우리는 그 꿈이 자라 행복으로 클 때까지

믿음이라는 인내가 필요함을 압니다

믿는 만큼
행복하다!

믿는 만큼 행복하다!

이것이 한화의 믿음입니다

